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I. 연수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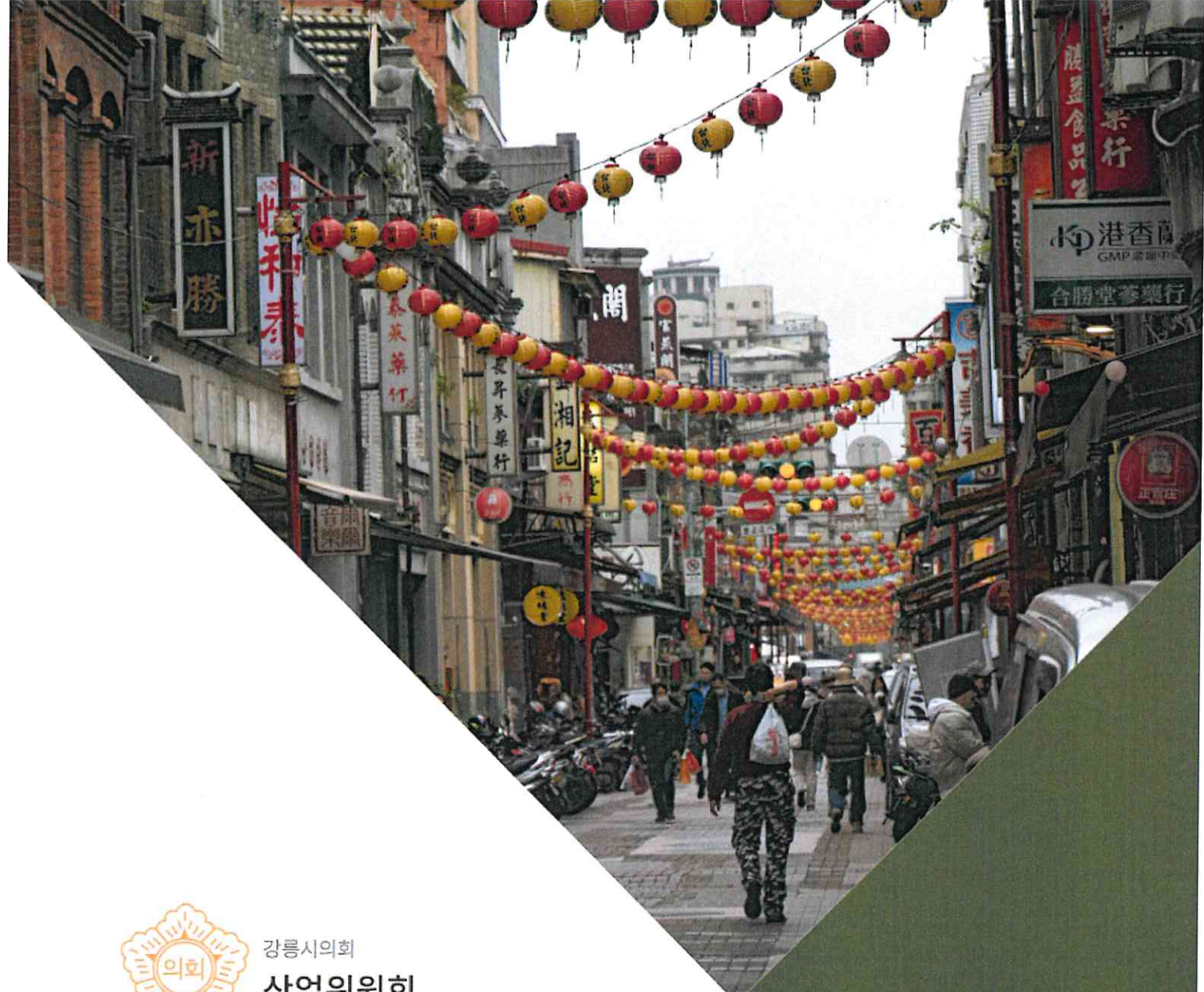
1. 연수개요	5P
2. 연수일정	6P
3. 연수국 현황	7P
4. 주요 방문지 및 연수 주안점	8p

II. 주요 방문지

1. 전통시장(야시장) 탐방	
1) 류허 전통시장	9P
2) 화시지에 전통시장	11P
3) 스린 전통시장	13P
2. 도시재생 우수지역 답사	
1) 다다오청(디화제거리)	16P
2) 단수이강변공원, 홍마오청	18P
3) 보장암국제예술촌	20P
4) 지우편	23P
5) 스펀	26P
3. 도심공원	
1) 아이허	28P
2) 연지담	30P
3) 따자강변공원	32P
4. 공식방문지	
1) 타이베이하수도국(오페수처리장)	33P
2) 신주과학산업단지	37P
3) 타이베이시의회	40P

III. 맺음말

1.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42P
2. 도시재생 우수지역 답사	43P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연수일반

I 연수 일반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강릉의 전통시장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모색을 위한 해외 우수 사례 탐방
- 타이베이시의회 방문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교류사업 방안 등을 논의
- 우수 산업시설인 타이베이 하수도국 방문으로 강릉시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ITS 세계총회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참여 독려

□ 연수기간: 2023. 2. 14.(화) ~ 2. 19.(일) / 5박 6일

□ 연수 국가 및 일정: 대만

- 출국항공편: 2. 14.(화) (08:25) 양양(한국) ⇒ 대만(타이베이)
- 귀국항공편: 2. 19.(일) (11:25) 대만(타이베이) ⇒ 양양(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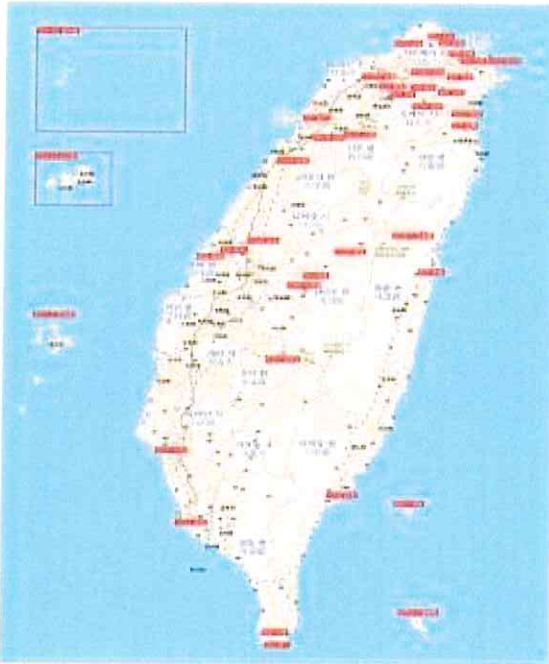
□ 연수인원: 12명

- 시의회: 9명(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 수 행: 3명(산업전문위원, 의사담당, 문종호)

2. 연수일정

월/일	지역	교통편	시간	상세일정
1일차 2.14 (화)	강릉 양양 타이베이 가오슝	시의회버스 4V201 기차 전용차량	05:40 06:30 08:25 10:25 13:00 16:00 16:00 ~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출발 ▪ 양양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 양양국제공항 출발(약 2시간 20분 소요, 시차 -1시간) ▪ 타이베이 도착 후 기차역으로 이동 ▪ 타이베이 출발 ▪ 가오슝 도착 ▪ 전통시장(야시장)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탐구 - 류허 전통시장 ▪ 아이허강 경관조명 벤치마킹 - 아이허강 방문
2일차 2.15 (수)	가오슝 타이베이	전용차량 기차 전용차량	09:00 ~ 13:00 14:00 17:00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지담풍경구 ▪ 가오슝 출발 ▪ 타이베이 도착 ▪ 다다오청 ▪ 전통시장(야시장)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탐구 - 화시지에 전통시장
3일차 2.16 (목)	타이베이	전용차량	전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타이베이 의회 방문(공식방문일정)</u> ▪ 단수이강변공원, 홍마오청 ▪ 전통시장
4일차 2.17 (금)	타이베이 신베이	전용차량	전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타이베이 하수도국(공식방문일정)</u> ▪ <u>신주과학산업단지 하수도국(공식방문일정)</u>
5일차 2.18 (토)	신베이	전용차량	전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암국제예술촌 ▪ 지우펀, 스펀 ▪ 따자강변공원
6일차 2.19 (일)	타이베이 양양 강릉	4V202 시의회버스	11:25 15:05 16:00 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베이 출발 ▪ 양양 도착 및 입국 수속 ▪ 양양 출발 ▪ 강릉 도착

3. 연수국 현황



◇ 일반현황

- 국 명 : 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
- 면 적 : 35,980km² (우리나라 1/3)
- 인 구 : 23,405,309만명(2017)
- 수 도 : 타이베이
- 민 족 : 한족이 인구의 97%, 기타원주민 2%(16개종족), 기타1%
- 종 교 : 불교 35%, 도교 33%, 기독교 2.6%, 천주교 1.3% 등
- 언 어 : 중국어
- 기 후 : 북부는 아열대 기후, 남부는 열대기후에 속함.

4. 주요 방문지 및 연수 주안점

연 번	방문지	연수 주안점	비 고
1	아이허강	아이허강 일원의 경관조명을 벤치마킹하여 강릉 시내 및 주요 관광지에 특색있고 쾌적한 야간 볼거리 제공	
2	류허 전통시장	가오슝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자 대만 3대 야시장인 류허야시장의 우수사례를 수집해 강릉시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3	신주 과학산업단지	타이베이 인근도시에 있는 신주 과학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하여 강릉시 과학산업단지의 발전 방안 모색	
4	화시지에, 스린 전통시장	타이베이 대표 야시장 스린, 화시지에 야시장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	
5	타이베이 하수도국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타이베이의 선진 상하수도 시스템을 견학하여 강릉시 상하수도 시스템에 접목	
6	타이베이 시의회	타이베이 의회를 방문하여 우호를 공고히 하고 국제교류사업 등을 논의	
7	단수이 지역	단수이 지역의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진행 과정을 견학해 작년에 최종 선정된 강릉시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에 접목	
8	따자 강변공원	지룽 강변을 따라 조성된 따자 강변공원을 둘러보며 남대천 일원 공원에 친환경적 공간 조성 방안 벤치 마킹	

02

주요방문지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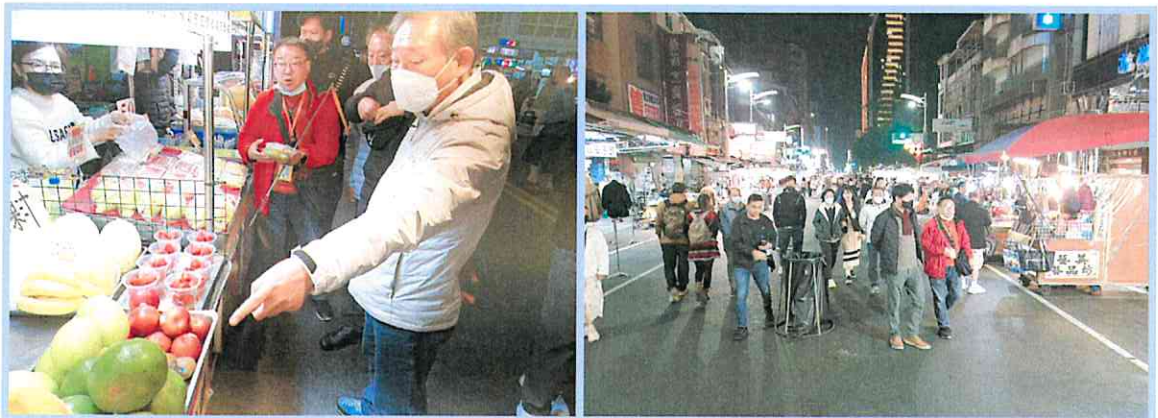
II 주요 방문지

I 전통시장(야시장) 탐방

1. 류허 전통시장

- 방문일시: 2023. 2. 14.(화) 18:00
- 장 소: 류허 전통시장(야시장)
- 내 용: 전통시장(야시장) 우수사례 수집

○ 가오슝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자 먹자골목으로 현지 발음으로 리우허 야시장이다. 1950년대에 문을 연 이곳은 대만에서 3대 야시장으로 꼽힐 정도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다. 양쪽의 도로에서 음식점과 노점상이 200m 넘게 이어져있다. 낮에 가면 웅한 느낌이 드는 도로지만 어둠이 내리는 해질녘 이후부터 120개가 넘는 노점과 가판대들이 들어서며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다. 시장은 매일 저녁 식사를 하려는 가오슝 시민과 여행자들로 북적인다. 음식은 타이완 길거리 음식과 해산물, 휘귀, 스테이크 등까지 다양한 요리를 볼 수 있다. 특히 새우, 오징어, 문어, 게 등 해산물 요리를 판매하는 노점이 다수다.



류허 전통시장(야시장)

- 관광객에게는 새우구이와 파파야우유의 인기가 높다. 취두부와 지파이도 색다른 음식이다. 취두부를 파는 노점에서는 취두부의 강렬한 냄새가 풍기기도 한다. 음식 외에 의류, 잡화,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노점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관광객이 주로 찾는 시장이다 보니 다른 야시장에 비해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다.



류허 전통시장(야시장)

2. 화시지에 전통시장

- 방문일시: 2023. 2. 15.(수) 17:30
- 장 소: 화시지에 전통시장(야시장)
- 내 용: 전통시장(야시장) 우수사례 수집

-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타이베이 대표 야시장 중 하나이다. 근처에 룽산사가 있기 때문에 룽산사와 야시장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중국식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야시장 입구가 돋보인다. 해 질 무렵부터 야간에는 거리 안쪽에 홍등을 밝혀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화시지에 야시장은 낮에도 운영은 하지만 손님이 그리많은편은 아니지만, 저녁무렵에는 골목 구석구석과 상점, 노점 등에 손님과 관광객이 가득 찬다. 상인들은 주로 음식, 간식거리, 과일, 약재 등을 판매한다. 아케이드가 있는 상가도 형성되어 날씨와 상관없이 시장을 구경할 수 있다.



화시지에 야시장 노점상



화시지에 야시장 노점상

○ 화시지에 야시장은 음식점과 노점이 많다. 야간에는 야외 노점과 포장마차가 꼭 들어찬다. 꼬치구이, 각종 면요리, 해산물요리 등의 음식들을 판다. 특색있는 현지 음식들을 싼값에 골고루 맛볼 수 있다. 열대과일, 전통 디저트 등 군것질거리의 종류도 다양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타이베이 주민들과 대만 요리를 맛보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 화시지에 야시장에서는 뱀, 자라 등을 팔기 때문에 독특한 야시장으로 손꼽힌다. 예로부터 화시지에 야시장은 타이베이의 다른 야시장보다 더 독특한 음식과 보양식으로 유명하다. 가게에 뱀을 꺼내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게하여 즉석에서 뱀, 자라, 제비집 등으로 요리를 해준다. 보양식을 먹기 위해 화시지에 야시장을 찾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많다. 대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생소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야시장이다. 아케이드 상가 안에는 발 마사지 업소도 많고 야시장을 구경하고 발 마사지로 피로를 푸는 것도 대만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화시지에 야시장 전경



화시지에 야시장 전경

3. 스린 전통시장

- 방문일시: 2023. 2. 16.(목)
- 장 소: 스린 전통시장(야시장)
- 내 용: 전통시장(야시장) 우수사례 수집

○ 타이베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야시장이자,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한 세기 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만 대표 야시장이자, 스린 거리를 꿰뚫는 츠청궁과 다동루를 중심으로 야시장이 만들어진다. 대만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모도 크다 보니 쇼핑과 음식을 즐기러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타이베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반드시 들르는 관광지이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때에는 주말 40~50만 명이 넘는 인파로 인해 제대로 즐기기 어려울 정도이다.

○ 야시장 인근에 대학교 등도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도 많다. 골목은 좁지만 옷가게와 음식점, 노점상이 몰려 있다. 다동루 인근에는 큰 규모의 상점이 많다. 애완용품, 의류, 신발, 가구,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 옷, 액세서리는 동대문 시장, 다른 물건은 남대문시장과 비슷한 분위기이며 노점상이 많아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기 매우 좋다. 굳이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구경만 다니는것만으로도 흥미롭다.



류허 전통시장(야시장)의 먹거리

- 시간이 자정을 향해 갈수록 야시장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야시장 지하 푸드코트에는 맛있고 다양하며 저렴한 먹을거리가 넘쳐난다. 스린 전통시장(야시장)의 백미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타이베이의 길거리 음식들을 모두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류가 다양하고 평소 우리가 접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대만식의 망고 빙수, 철판요리, 해산물 튀김 등을 많이 찾는다.



스린 전통시장(야시장) 입구



스린 전통시장(야시장) 일원



스린 야시장

시사점 및 제언

- ▶ (대표 관광지) 대만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야시장을 가보았을 것이다. 대만의 야시장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전통 식품을 비롯하여 전통 상품이 즐비하기 때문에 대만 고유의 맛과 풍물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다.
- ▶ (생활 연관성) 여름에는 낮에는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일년 중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기온이 14~18도이므로 사람들이 밤에 활동하는 데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 따라서 기후적으로도 야시장은 대만의 환경에 매우 적합한 구조이다.
- ▶ (위생 및 시설) 각 점포마다 다르지만 전통시장의 특성상 위생 및 시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해산물 노점상이 꽤나 많았는데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 금방 상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 ▶ (다양한 품목) 야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음식, 의류, 장식, 잡화 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야시장 및 인근에는 어딜가든 마사지 샵이 많기 때문에 좀더 머물며 시장을 즐길 수 있음
- ▶ (야시장 특색) 다양한 품목, 높은 품질, 친절한 서비스 등 강릉의 전통시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대부분의 점포들이 매우 친절하다.
- ▶ (발전방향) 강릉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성남·중앙시장을 비롯하여 8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하지만 대만처럼 상시 열리는 야시장이 아닌 특정기간에만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선 상설 야시장 운영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 도시재생 우수지역 답사

1. 다다오청(디화제거리 등)

- 방문일시: 2023. 2. 15.(수) 15:00
- 장 소: 단수이 강변공원, 홍마오청 등
- 내 용: 다다오청과 인근지역 도시재생 우수사례 조사

○ 다다오청 역사경관지구는 타이베이시 유명한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다. 인근의 다다오청 부두에서는 매년 명절 때가 되면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19세기 후반 단수이강의 개방으로 서양과의 차(茶)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발전한 다다오청 지역에는 당시 지어진 벽돌 또는 석재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후 건립된 현대식 건물과 함께 독특한 문화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 디화제는 다다오청부두와 연결된 지역으로 1850년대 청나라 시대부터 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현재도 디화제는 전국 각지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400개 이상이 있고 찻잎, 견과류, 각종 과일, 채소, 한양재, 건어물 등과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 등의 독특한 특산품들도 눈에 보인다.
- 청나라 시대부터 번성했던 곳인 만큼 당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양식의 이국적인 건물들이 있어 관광객에게는 영화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시사점 및 제언

- ▶ 타이베이는 다다오청 역사경관지구 내 쇠퇴한 지역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버려진 공간을 매입, 지역전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 ▶ 2010년부터 도시재생전진기지 만들기 활동으로 버려진 넓은 공간을 매입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가 하면 젊은 예술가 및 사업주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 오래된 건물이 많지만 정부에서 버려진 공간을 매입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기에 보존이 매우 잘 되어있다.
- ▶ 지역의 역사문화공간·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재생 부서와 문화창작관련 부서가 각각의 계획을 연동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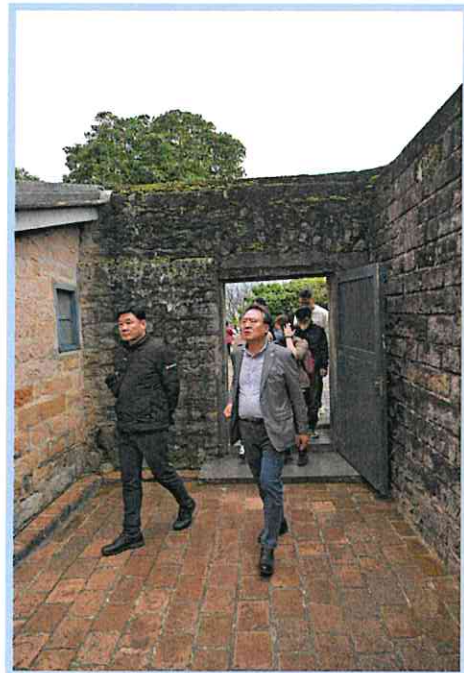
2. 단수이구(강변공원, 홍마오청 등)

- 방문일시: 2023. 2. 16.(목) 15:00
- 장 소: 단수이 강변공원, 홍마오청 등
- 내 용: 단수이 강변공원과 홍마오청 일원 벤치마킹

○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대만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배경이기도한 이곳은, 강변을 산책하다가 아름답고 황홀한 석양을 바라보며 타이베이 여행에서 최고의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홍마오청, 강변공원, 진리 대학교, 탄장 고등학교 등이 서로 거리가 멀지않아 걸어서 돌아 볼 수 있다. 단수이지역은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강대국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홍마오청 전경



홍
마
오
청
내
부



홍마오청 내부

- 19세기 말까지 무역 상인들이 드나들어 대만을 대표하는 항구였으나 강하구의 퇴적 현상으로 대형 선박이 오갈 수 없어 대부분 기능은 지룽항으로 옮겨 갔고 지금은 타이베이 시민들의 쉼터이자 여행자들의 아름다운 여행지로 주목 받고 있다.
- 서양인의 붉은 머리카락에서 이름을 따온 홍마오청은 1629년 단수이지역을 점령한 스페인이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 만든 건물이다. 1642년부터는 네덜란드인이 이곳을 지배하였다. 처음에는 산 도밍고 요새로 불리기도 하였고, 아치형 기둥과 붉은색 벽돌 등의 식민지 건축 특성이 잘 나타난다. 1867년부터는 영국의 영사관으로 사용되다가 1980년부터는 대만 정부 소유로 전환되었고, 이후 여러나라의 건축적 특색이 섞여 매력적인 건축물로 재탄생 되었다.
- 신베이시에 속해 있어 타이베이 근교 지역으로 분류하지만 MRT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약 40분 정도 소요됐다.



단수이 강변공원 전경



단수이 강변공원 전경

3. 보장암국제예술촌(Treasure hill artist villege)

- 방문일시: 2023. 2. 18.(토) 11:00
- 장 소: 보장암국제예술촌
- 내 용: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조사



보장암국제예술촌 전경

- 이곳은 1960~70년대 피난민들이 중국에서 건너와 정착한 곳으로 건물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었다. 세월이 흘러 철거를 하려던 타이베이 시에 시민들과 각개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탄원하여 2004년, 타이베이 최초로 마을 형태의 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기로 했다. 2006년경부터 국제예술촌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개보수했다.
- 국제예술촌을 조성하며 남은 주민은 그대로 둔 채,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타이베이시가 보상하여 이주시키고 남은 공

가를 개보수하여 기존의 생활풍경을 유지하며 예술촌만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냈다.

- 2006년부터 문화부에서 국제예술촌 프로젝트로 개보수를 시작했고, 시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보상 이주와 함께 예술가들의 작업장과 전시장이 입주하고 공연도 열리고 있다.
- 보장암 마을에는 보장암과 주변을 관찰해 그린 벽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슈퍼, 카페, 식당에서 쉴 수도 있고 가가 호호마다 마을 주민들의 스토리가 문패처럼 붙어있고, 마을을 형상화한 작품 등이 마을 스토리를 풍성하게 한다. 전시 작품과 벽화를 감상하고 사진 놀이도 천천히 둘러보기 좋다.



보장암국제예술촌 내 전시작품



보장암국제예술촌 그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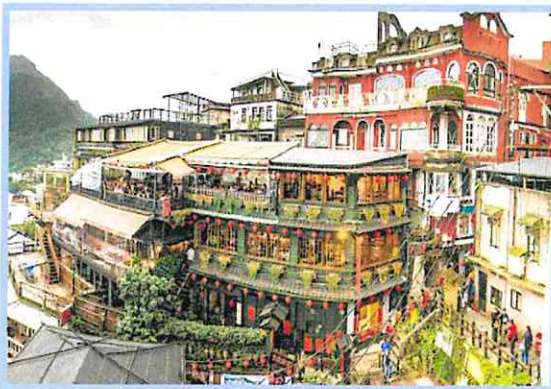
시사점 및 제언

- ▶ 보장암국제예술촌은 이름에서 유추할수 있듯 매년 전세계에서 지원하는 작가 중 인원을 선별하고 선별된 예술가들이 거주하며 전시와 축제등을 열고 있다.
- ▶ 부산 감천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동해 담화마을(논골담길)과 타이베이의 보장암국제예술촌의 공통점은 피난민들이 정착한 이민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하나의 성공한 도시재생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고 낡은 담장을 칠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 ▶ 기존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어루러져 예술촌을 조성하였기에 토속적인 생활풍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마을 경관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
- ▶ 주문진에서 추진된 등대마을, 불당골 새뜰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탁트인 바닷가를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건물과 낙후된 기반시설 등을 수리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추후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4. 지우편

- 방문일시: 2023. 2. 18.(토) 14:00
- 장 소: 지우편
- 내 용: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조사

○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지우편은 타이완의 옛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지우편은 1920~1930년대 금광 채굴로 번성을 누리던 도시였고 유흥지였으나 광산이 폐광된 이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쇠락했다. 하지만 1989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 <비정성시> 촬영지로 서서히 주목을 받았고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지로 유명세를(실제로는 아니라고 함) 떨쳤다. 현재는 관광 산업으로 활기를 되찾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타이베이 근교 여행지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우편



지우편 골목길 상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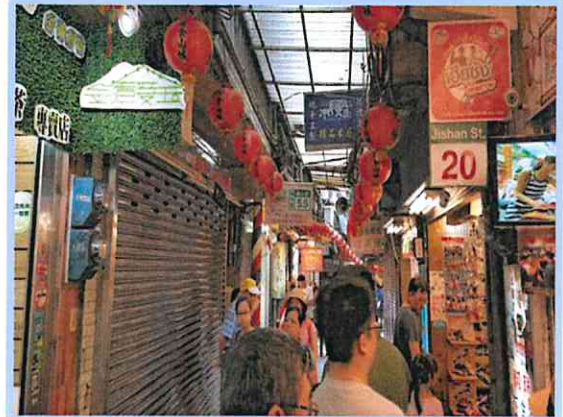
○ 구불구불 이어진 비탈길을 따라 늘어선 예스러운 건물들이 눈길을 끈다. 골목마다 묻어나는 낭만적인 정취, 흥등이 빛나는 이국적인 풍경은 타이완 사람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마치 오랜 옛날로 시간 여행을 떠났던 듯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웅장하거나 화려한 볼거리

는 없지만 미로처럼 엮인 골목과 계단을 느긋한 걸음으로 산책하며 여행 중 호흡을 가다듬기에도 좋은 곳이다.

- 지우편에서 가장 변화한 곳은 지산제라는 골목길이다. 산 중턱을 동서로 연결하는 이 길에서 지우편 여행이 시작된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면 왼쪽 편의점 옆에 지산제 입구가 있다. 지산제에는 아기자기한 기념품이 가득한 가게와 음식점, 카페 등이 줄줄이 늘어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다. 이곳의 명물로 통하는 샤오츠, 땅콩 아이스크림, 꼬치구이, 위위안 등을 맛볼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해 이것저것 다 맛보아도 부담이 없다.



지우편 골목길 상점들



지우편 골목길 상점들

- 수치루 또한 지우편의 매력을 느끼기에 그만이다. 지산제를 따라 걷다가 사거리 오른쪽으로 나오는 급경사의 계단 길이 바로 수치루다. 수치루는 영화 <비정성시>의 배경이 된 거리로 지우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좁고 가파른 돌계단을 따라 분위기 좋은 전통 찻집들이 줄지어 있다. 전망 좋은 찻집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낭만적이다. 술과 우롱차, 꿀을 섞어 만드는 ‘구이화차주’로 유명한 아메이차주관도 수치루에 있다.

- 해가 질 무렵에는 수치루의 건물마다 주렁주렁 내걸린 홍등에 불이 켜지면 더욱 운치 있다. 빛나는 홍등은 지우편을 상징하는 풍경이자 타이완을 대표한다. 저녁마다 홍등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좁은 계단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고 한다.

시사점 및 제언

- ▶ 낮에는 구불구불한 비탈길과 골목 사이사이 늘어선 가게를 돌아보고 느긋하게 앉아 바다를 볼 수 있 수 있으며, 저녁에는 골목마다 켜진 홍등이 빛나 매력적인 곳이다.
- ▶ 대만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 하나인 지우편은 예스진지(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편) 또는 예스폭진지(예류, 스펀, 스펀 폭포, 진과스, 지우편)라는 하나의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묶여 택시나 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 ▶ 각각 하나씩 떨어트려 놓고 보면 방문하는 관광객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하나의 코스로 묶으니, 여러 장소에서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대만을 대표하는 곳이 되었다. 강릉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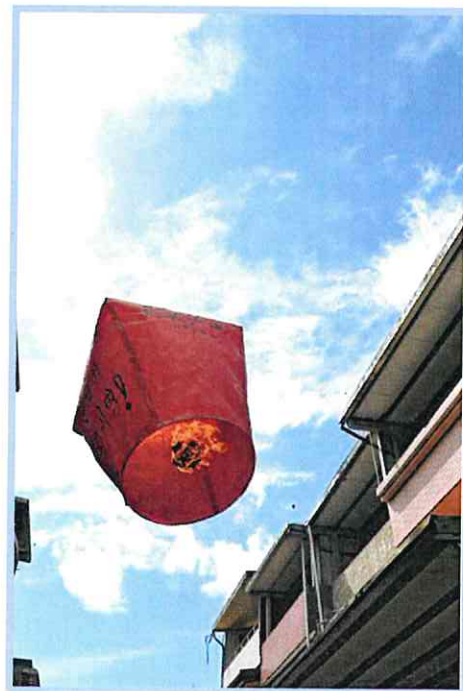
5. 스펀

- 방문일시: 2023. 2. 18.(토) 15:30
- 장 소: 스펀
- 내 용: 오래된 시골마을이 관광지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 조사

○ 핑시셴 기차가 오가는 철로에서 소원을 천등(天燈)에 적어 하늘에 날려 보내는 마을로 여느 탄광 마을보다 더욱 활기차고 아름다워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타이완 명물, 택시 투어를 이용하는 여행자들도 핑시셴으로 이어진 탄광 마을 중 반드시 들리는 곳이다. 스펀처짤과 스펀라오제 사이를 잇는 철로 주변에는 먹거리를 판매하는 노점과 기념품 상점 그리고 천등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스펀 천등



날아가는 스펀 천등



스펀 철길위에서

- 많은 사람이 천등에 소원을 적고 있는 모습부터 기차길에서 천등을 날리는 모습까지 모두 스페인의 진풍경이다. 태국의 매끌렁 기차 시장과 닮았지만 평소엔 기차는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안전사고가 난적이 없다고 한다. 곳곳에 안전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기차길에서 사진 놀이를 하다 어디선가 호각 소리가 들려온다면 기차가 들어온다는 신호이니 얼른 철로에서 물러나자. 무엇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철로 위를 거닐 때는 넘어지지 않게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자.

시사점 및 제언

- ▶ 석탄과 지역주민을 나르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곳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는 관광객을 위해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 ▶ 오래된 건물 앞에 지나가는 기차와 기차가 운행되지 않을때 천등에 축복과 소원을 적어 날리는 것은 대만에 온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관광코스가 되었다.
- ▶ 대만 기후 특성상 천등을 날려도 산불의 위험이 거의 없지만 매년 산불로 고생하는 강릉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등을 날리는 아이디어 하나로 대만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었기에 강릉 또한 특색있는 체험형 관광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③ 도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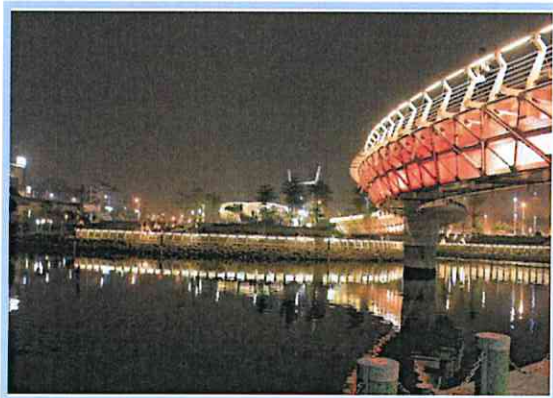
1. 아이허(愛河, Love river)

□ 방문일시: 2023. 2. 14.(화) 20:30

□ 장 소: 아이허 강변

□ 내 용: 아이허 주변 공원과 경관조명 벤치마킹

- 가오슝 시내 중심을 흐르고 있는 가오슝 최대의 운하(길이 12km) 아이허는 이름 그대로 사랑의 강이라는 뜻이고, 일찍부터 가오슝 운수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했으며, 지금도 물의 도시 가오슝의 상징적 존재로서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허 강변 야간 경관조명



아이허 강변 야간 경관조명

- 아이허의 서쪽 방면은 오래된 건물이 남아 있는 구시가지로, 높은곳에 위치한 서우산 공원에서는 가오슝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구시가지에서 페리를 타고 치진반도의 해산물 거리로 갈 수 있다. 아이허 근처의 신시가지 방면은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쇼핑몰, 대형 백화점과 상점가 등이 정비되어 있으며, 하구에는 고층의 빌딩이 밀집하고 있어 가오슝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 호주 시드니정도의 화려한 야경은 아닐지라도 사랑의 강이란 뜻을 가진 아이허답게 풍경이 아름다워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가오슝 대교와 치센차오 사이 아이허를 잇는 지역은 야자수가 많은 공원덕분에 열대지방의 정취가 느껴진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있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 아이허에서 운행되는 곤돌라와 유람선에 타는 것도 좋다. 특히 저녁이 깊어 질수록 치센바오, 중징 대교, 가오슝 대교 등에 야경이 한층 멋있어 진다.
- 아이허는 매년 여러 축제를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색찬란한 등불축제를 보기 위해 매년 타이완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시사점 및 제언

- ▶ 강변을 따라 조성된 경관조명이 아름답고 주변도 깨끗하여 관광객이 많다.
- ▶ 잘 조성된 경관조명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타이완 등불축제가 열리기도 하였다.
- ▶ 경포호 및 인근 바닷가와 남대천 일원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관조명 사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 ▶ 다섯 개의 달로 유명한 경포호와 인근 바닷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매년 음력 5월5일을 전후해 8일간 남대천변에서 열리는 강릉단오제와 연계할 야경 핫플레이스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2. 연지담

- 방문일시: 2023. 2. 15.(수) 10:00
- 장 소: 연지담 일원
- 내 용: 연지담과 주변 공원 벤치마킹

- 폭 400m, 길이 1.4km의 호수로 가오슝의 대표적인 명소인 연지담은 근처에 타이완에서 가장 화려하고 많은 사원이 밀집해 있어 볼거리가 많으며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서민적인 관광지다. 이른아침에는 호수가의 버드나무와 물안개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뽐내기도 한다.
- 호수 안에는 구곡교를 통해 건널 수 있는 1951년 완공된 궁전식 누각 춘추각이 있다. 춘추각은 용을 탄 관인이 구름 위에 나타나서 자신의 성상(성인이나 임금의 상)을 만들라고 한 전설에 착안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구곡교 앞쪽의 붉은 정자가 오리정이다.



연지담 용호탑



연지담에서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

- 연지담 북쪽에는 공자사당이 있고, 남쪽에는 계명당과 용호탑이 있다. 타이완 최대 규모의 공자사당에서는 매년 9월 공자의 생일에 성대한 의식을 행한다. 내부에는 공자의 사적을 서술한 벽 부조가 있는데 뒷면에는 공자의 학식과 도덕을 기르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계명당은 오공보살을 위해 세운 사당이었지만 지금은 관우와 공자를 함께 모시는 사당이고 1974년에 재건된 것이다.
- 7층 탑인 용호탑 앞에는 입을 벌리고 있는 용과 호랑이의 동상이 있다. 용의 입으로 들어가 호랑이의 입으로 빠져나오면 악운이 행운으로 변한다고 하여 언제나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한다. 탑 위로 올라가면 사원이 늘어선 연지담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연지담

3. 따자강변공원

□ 방문일시: 2023. 2. 18.(토) 17:00

□ 장 소: 따자강변공원

□ 내 용: 강변에 조성된 공원과 생활운동시설 우수사례 수집

- 중산구 중산교와 따즈교(大直橋) 사이에 위치한 따자강변공원(大佳河濱公園)은 굽은 부분의 지룡강을 곧게 만든 후 시에서 건설한 도시형 공원이다. 면적이 넓어 공원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보이는 것이 바로 아주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다. 또한 미라마 관람차가 멀리 보이고 경치가 아주 훌륭하다. 공원 내에 있는 가장 큰 분수대의 물은 최대 높이 약 75m에 달하고 물의 강약 조절로 변화를 주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족에게 인기가 많다.



따자강변공원 전경



따자강변공원 전경

-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풋살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이 있고 공원 주변과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대여시설이 있다. 따자강변공원은 매우 넓은 둔치에 조성되어 있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우며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기때문에 휴일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각종 스포츠를 즐기고 산책과 러닝을 한다. 이 외에도 각종 행사를 개최해 인근주민과 관광객에게 타이베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4] 공식방문지

1. 타이베이 하수도국(디화 오폐수처리장)

- 방문일시: 2023. 2. 17.(금) 10:00
- 장 소: 타이베이 하수도국(디화 오폐수처리장)
- 내 용: 타이베이 하수도국과 디화 오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타이베이 하수처리 시스템 견학

○ 타이페이시에는 현재 3곳의 오폐수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두 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방문한 디화 오수처리장은 1만5000여평 규모로 하루 50만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다.

○ 타이페이시는 하천수 개선을 위해 1972년 빠리 오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하수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하수도보급율은 79%.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수도 파이프 총길이는 약 2700km, 사업비 1600억원(대만 화폐)을 들여 구축했으며, 24시간 자동회로로 모니터하고 있다. 또한 2000여 골목에 하수도관을 매립하면서 골목 경관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타이베이 하수도국 관계자 기념촬영



하수처리시설

- 타이페이시 하수도 정책은 환경의 지속발전 촉진, 도시의 정맥시스템 구축, 수자원의 재활용 제고를 위한 수환경 순환체계 구축, 방재 대응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디화 오폐수처리장은 1975년 지하시설로 설치됐으며, 하루 50만톤의 생활오수 가운데 1만톤을 재사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1만톤의 재생수는 화장실, 공원 살수, 도로 청소용 등으로 재사용되고 있다. 타이페이스 오폐수처리장은 설비투자비에 따라 3등급으로 3등급 처리장이 재생능력이 가장 높으며, 디화 오폐수처리장은 2등급 처리장이다.
- 디화 오폐수처리장에서는 하루 110톤의 슬러지가 발생하며, 탈취 과정을 거쳐 대부분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30% 수준에 그치며, 수자원 절약을 위해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오폐수처리장 지상공원



재생수 생산 과정



우수관과 연결된 식별번호가 붙어있는 맨홀

시사점 및 제언

- ▶ 타이베이는 우수관과 연결되는 맨홀에 우리나라 전봇대처럼 식별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내려 우수관이 막혀도 누구든 번호만 대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 강릉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 강릉시는 오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디화 오폐수처리장에서 만들어진 재생수는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마실순 없지만 화장실, 공원 살수, 도로 청소용 등으로 재사용되고 있다.
- ▶ 디화 오폐수처리장 사례처럼 강릉시도 재생수를 활용하여 화장실, 공원 등에 사용한다면 물생산 비용 감소, 환경오염 예방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농업 용수로 이용한다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기에 가뭄이 들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 디화 오폐수처리장의 시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악취도 거의 없고 지상은 면적 약 46,000㎡ 공원으로 조성되어있어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 ▶ 공원의 시설은 운동장, 놀이터, 농구장, 테니스 등 종류도 다양하고 단수이강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다.
- ▶ 이렇듯 오폐수처리장이지만 악취도 없고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수도 행정 홍보를 위한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신주과학산업단지

- 방문일시: 2023. 2. 17.(금) 15:00
- 장 소: 신주과학산업단지
- 내 용: 반도체를 중심으로한 신주과학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성공요인 분석

○ 타이베이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신주과학산업단지는 대만 최초의 사이언스 파크다.

○ 올해 45주년을 맞은 신주과학산업단지는 1975년 대만 정부가 일본 시찰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설립을 추진, 1980년 출범한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내면서 대만의 정보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광물, AI, 생물과학, 의료기기 등 하이테크 선두주자로 현재 70여개의 외국기업을 비롯해 600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신주과학산업단지

- 총 면적 1342ha의 신주과학산업단지는 입주인구 31만3877명, 연간 영업이익 3조7000억원(대만)을 기록하며 대만의 ‘실리콘 아일랜드’로 불리운다. 과학산업단지 부지는 국가소유이지만 입주업체들의 투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간을 임대해주고, 표준스탠다드 공장을 지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업체 유치에 위한 직접적인 보조보다 면세 등의 간접적 보조를 통한 입주 유도 정책도 눈길을 끌었다.
- 신주과학산업단지 내에서 별도의 오수처리장도 설치돼 신주사이언스파크는 물론 신주지역 생활 오폐수도 함께 처리해주고 있다. 입주업체 엔지니어들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 외국에서 오는 직원을 위한 숙소 운영과 직원용 진료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 투자시 ‘일창구제도’ 운영을 통해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신주과학산업단지 박물관 관람



신주과학산업단지 박물관 관람

- 또한 신주과학산업단지 주변에는 7개의 대학교와 8개의 연구센터 등이 위치해 산학연 협력체계가 잘 구축될 뿐만 아니라 박사 3%, 석사 34%, 학사 33% 등 70% 이상이 학사 출신으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신주시는 대만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다.
- 40여년의 역사가 있는 신주과학산업단지는 세계 여러국가와 자매결연을 맺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창신’ ‘포용’ ‘지속적 발전’ 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우수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해나가겠다는 포부다.



신주과학산업단지에 전시된 전경



신주과학산업단지 관계자와 간담회



신주과학산업단지 관계자와 간담회



모션감지 시스템 체험

3. 타이베이시의회

- 방문일시: 2023. 2. 16.(목) 10:00
- 장 소: 타이베이시의회
- 내 용: 타이베이시의회 방문

- 인구 240만 명의 타이베이시 의회의 의원정수는 6개 선거구, 61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의원은 29명이며, 5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4년이고, 2022년 12월25일 취임했다. 시의장은 30세, 시의원은 23세 이상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 여성당선할당보장제 25%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선거구의 4개 의석 중 1개는 반드시 여성의원을 위해 예약 되어있다. 의회 조직은 의장과 부의장, 민정·재정건설·교육·교통·위생·공무·법규위원회 등 모두 7개 상임위원회와 절차·기강 2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타이베이시의회

- 정기총회는 6개월마다 1회 개최되고, 회기마다 70일 이내, 임시총회는 시장, 의장 또는 의원총수 3분의 1이상 청구가 있을 때 10일이내에 열리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대구시가 자매도시 체결하였다.



세계합창대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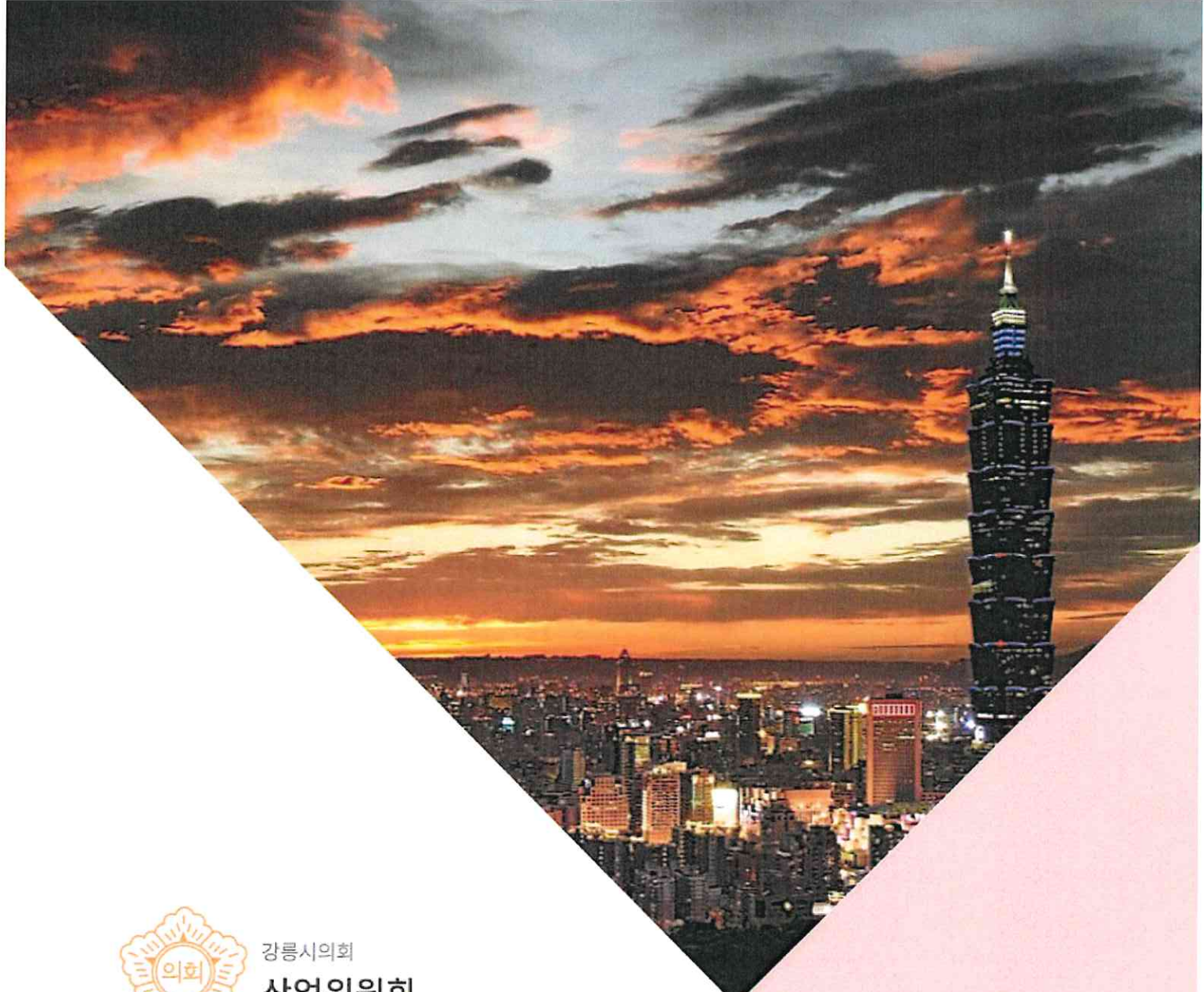
타이베이시의회 간담회



타이베이시의회 간담회



타이베이시의회 간담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맺음말

III

맺 음 말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 강릉은 타시군에 비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편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중앙, 성남, 주문진건어물, 주문진좌판풍물시장은 찾는 관광객이 많고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던 서부시장도 예전에 비해 빈점포도 많이 줄었고 손님도 늘었다.
- 하지만 그 외 강릉의 전통시장은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다. 시설은 낙후되어가고 젊은 상인들이 없다시피해 품목이 제한되어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야시장을 활성화 시키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만은 어느지역에서든 야시장에 손님이 많다. 주변 주민들이 야시장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관광객 역시 야시장을 당연히 가야하는 관광코스로 생각하기에 손님이 더욱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 강릉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야시장사업이 중단되었지만 작년부터 다시 주문진수산시장에서 재계 되었고 올해도 강릉시 곳곳에서 야시장을 개장할 예정이고 예산도 편성되어있다.
- 대만의 야시장은 품목이 다양하고 야간조명도 예쁘게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벤치마킹하여 강릉에서도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했던 야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도시재생 우수사례

- 대만의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고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곳을 발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장암국제예술촌, 다다오청, 보얼예술특구 등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
- 피난민이 살고있던 불법건축물을 정부와 주민, 예술가들이 협력해 주거·예술·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탈바꿈한 보장암 국제예술촌과 관련부서를 도시재생 지역에 직접 설치하고 버려진 곳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지역전통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타이베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다다오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 시민참여와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도시재생계획과 문예·창작 계획을 연동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도 주목해야 한다.
- 물론 도시재생사업은 안전 확보와 인프라 개선이 전제 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대만의 도시재생사업 같이 특색이 없기에 강릉시의 도시재생사업 지역 들은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지 못했다.
- 작년 연말 강남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2026년까지 28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생활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접목해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